

엔비디아 하드캐리, 미 증시 기술주 중심 강세



미국시황/ESG 김윤정 _ yunjeong.kim@ls-sec.co.kr
RA 성현영 _ hyseong@ls-sec.co.kr

엔비디아 효과, 제한된 시장 동력 속 기술주 독주

- 미 증시는 DOW +0.20%, S&P500 +0.72%, NASDAQ +1.57% 상승 마감.
- 전일 장 마감 후 엔비디아 호실적 발표에, 기술주 중심 강세 흐름. 시장의 낙관 포인트는 ①FY28 연간 매출 +70%YoY 상승 전망. 이는 시장 컨센 +44%YoY 대폭 상회, ②해당 수치는 공급 능력에 따른 성장 제약을 반영한 것
- 다만 시장 전체 동력이 강화된 것은 아님. 금리 및 유가 압박으로, 주가 상승이 엔비디아 수혜 영역에 한정. 유가(WTI 기준 \$83.6)는 중동 합의 기대감 약화 반영, 미 국채 금리 역시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 발언으로 동반 상승. 그 결과 S&P 500 종목 간 상관관계(COR1M Index)은 여전히 연중 최저 수준 유지
- 연준 해킹 이야기는 고물가 지속에 따른 금리 인상 촉구. 슈미트 총재는 '완고하고 끈적한' 인플레이션을 언급. 다만 금리 인상 자체에 대해서는 수요 측 요인 추가 검토가 필요함을 언급

AI 밸류체인 희비 교차, 여전히 비용 부담 여부가 관건

- 주목할 부분은 AI 밸류체인 내 항방 엇갈림 지속. 금일 주가 상승 동력은 S/W에 집중. 비용 부담 주체들은 하방 압력 지속
- ① 세일즈 포스(+22.6%) 호실적으로, 어도비(+5.7%) 등 S/W 전반 강세. 사이버보안 역시 클라우드스트라이크(+20.5%) 수요 확대 입증하며 견조한 흐름. ②메모리는 브로드컴(+4.5%), 마이크론(-0.3%) 등 약보합. 고객 비용 부담에 따른 역풍 우려 존재. ③엔비디아, 메모리 업체들의 실적 강화 속, 반대 영역에 선 HP(-2.9%)는 비용 부담 가중. 실제 실적발표 상 메모리 비용 상승에 따른 마진 압박 언급
- 번외로 미 정부 측은 반도체 부문 고율 관세 부과 방안을 새롭게 검토 중이라 언급. 폴리틱소 소식통에 따르면, 업계 반발에도 불구하고 단계적 추진 의지를 보인 것으로 확인됨

티커	종목명	수익률 (1D,%)	내용
NVDA	엔비디아	+8.7%	전일 장 마감 후 호실적 발표에 주가 강세. 주요 IB들 일제히 목표 주가 상향. 골드만삭스는 목표주가 \$285→\$300, 미츠호는 \$300→\$315로 상향. 한편 레이몬드 제임스는 FY28 매출 70% 성장 가이던스, 신규 아키텍처 도입 가속화 및 F2Q27 \$26B 규모의 강력한 주주환원을 근거로 목표주가를 \$352→\$550로 대폭 상향하기도
SNDK	샌디스크	-1.0%	키옥시아 홀딩스와 AI 데이터센터용 낸드 플래시 공급 확대를 위해 일본 내 5조엔(약 \$31B) 이상의 대규모 투자 계획 발표. 고밀도 3D 플래시 메모리 칩을 생산하기 위한 기타카미 신규 팹 건설에 1.8조 엔이 예정될 예정. 한편 SK하이닉스(+2.3%)는 \$4B 규모 이상을 투자해 조성하는 인디애나 AI 메모리 패키징 공장 기공식 개최
DG	달러제너럴	+2.5%	실적발표. 호실적 발표 및 연간 실적 전망 상향 소식에 주가 강세. 반면 달러트리(-3.9%)는 관세 환급 효과로 실적 자체는 선방했으나, 3분기 EPS 및 동일매장매출 가이던스가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며 주가 하락
MRNA	모더나	-4.6%	앞서 머크와의 흑색종 임상 3상 긍정적 결과 이후, 항암제 사업 확장 및 부채 상환을 위해 \$2B 규모의 '32년 만기 무이표 전환선순위채 사모발행 발표. 캡트 콜을 통한 주주가치 희석 방지 조치에도 불구하고, 대규모 잠재적 전환 물량 부담으로 주가 하락
MRVL	마벨테크놀로지	-1.5%	장 마감 후 실적발표. 시간 외 주가 -5%대 하락중. 분기 실적 및 차기 분기 가이던스가 시장 예상치 소폭 상회. 다만 연초 이후 급등에 따른 높아진 시장 기대치 충족시키지 못하며 시간외 하락